



###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⑨ 제바달다품 제12

#### 용녀의 성불(일명 女人成佛)

이 '제바달다품'은 먼저 악인(惡人)인 데바닷다(提婆達多)의 성불을 밝히고 다음에 용녀(龍女)의 성불을 밝히는데, 여기서는 용녀의 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선 줄거리를 말하자면, 데바닷다에게 석존께서 수기를 마치시자 다보여래를 따라온 지적(智積)이라는 보살이 다보불에게 본래의 국토로 되돌아가고 중음했다. 그러자 석존께서는 지적보살에게 민주슈리(文殊師利)라는 보살이 있는데 그 보살과 묘법(妙法)을 서로 논한 후에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큰 바다의 사기라(娑竭羅) 용궁(龍宮)에 사는 민주슈리 보살이 수레바퀴만한 1천 잎의 연꽃에 앉아 나타났다. 그는 다보불과 석존을 경배한 후 지적보살과 인사를 나누었으니, 여기서부터 두 보살의 문답이 시작된다.

지적보살은 큰 바다 속의 용궁에서 민주슈리의 교화 상태를 묻고 민주슈리는 항상 <법화경

이 부처님께 바쳤다. 부처님은 즉시 이것을 받으셨다.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푸트라 두 사람을 향해 "나의 성불은 부처님께서 보배 구슬을 받으신 것보다 더 빠르다"고 말하자 금방 여자의 몸이 남자로 변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의 덕을 갖추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묘법을 설하자 그것에 의해 모두 깨달음을 얻고, 그 불국토인 무구세계(無垢世界)는 여섯 가지로 진동했다. 이를 본 지적보살과 사리푸트라 두 사람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납득하고 믿게 되었다.

이상이 용녀 성불을 설하는 부분의 개괄적인 요점이다.

그런데 용녀는 인간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다. 그 몸은 축생의 몸이어서 앞의 데바닷다보다도 성불에 관해서는 한층 불리한 조건에 있다.

그 용녀의 성불이 설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떠

## 보배 바치고 곧 남자로 변신·성불 불도성취 권고 분발의 뜻 담겨

>을 설해 왔고 그 교화한 사람의 수가 수없이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에 대해 지적보살은 "법화경"은 심심미묘(甚深微妙)하여 모든 경전의 보배인데 이 <법화경>을 수행하여 부처가 될 수 있는가 어렵다" 하고 묻는다. 여기서 민주슈리가 대답하기를 "사기라 용왕의 딸은 나이는 여덟 살이지만 지혜가 예리하고 여러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잊지 않고 간직하여 정(定)·혜(慧)를 갖추어 불퇴전(不退轉)의 경지를 얻어 깨달음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지적보살은 석존마저도 무량겁에 난행고행(難行苦行)하여 겨우 깨달음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용녀가 아주 쉽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는 믿기 어렵다며 의혹을 표명했다.

그러자 그 말이 끝나지도 않은 사이에 용녀가 출연히 용궁에서부터 부처님 앞에 출현하여 부처님을 찬탄하는 시(偈)를 읊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그것을 본 사리푸트라(舍利弗)가 용녀에게 질문한다.

"여자의 몸은 때론 더러워서 다섯 가지의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여자의 몸으로 성불이 가능한 것인가?"

그러자 용녀는 한 개의 보배 구슬을 꼬집어내

한 의의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역시 성불하기 어려운 존재의 성불이 설해졌다고 하는 데에 있다. 이것에 의해서 그 이상의 존재들에게 불도의 성취로 향하도록 마음을 일으키게 권함과 아울러 분발토록 격려함이 교시되어 있는 것이다.

사리푸트라(舍利弗)의 말로 설해진 '여자의 몸은 때론 더러워서 법을 담을 그릇이 아니다' '여인의 몸은 다섯 가지의 장애가 있다' 하는 말들은 모두 당시의 인도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남존여비라는 여성관의 소산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열반경>에서 '일체중생(一切衆生) 실유불성(悉有佛性)'이라고 설함과 같이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성불할 수 있다는 개성사상(性成思想)을 표방하고 있다. 그것은 본래 출생이나 지위, 남녀의 성차별마저 넘어선 이상인 셈이다.

여성성불을 설하는 경전에 <불설초일명삼매경(佛說超日明三昧經)>, <무소유보살경(無所有菩薩經)>, <불설무구현여경(佛說無垢賢女經)>, <불설전여신경(佛說轉女身經)>, <해룡왕경(海龍王經)>, <승만경> 등이 있는데 그 수(數)는 매우 적으나 모두 대승불교의 이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무설정사 조실

불교가 탄생한 인도와 선종을 낳은 중국, 꽃을 피운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역대조사의 수는 하늘의 별처럼 많다. 그 별 중 한국의 근대불교사에 빛을 발하는 스님은 민족대표 33인 중 한명으로 독립운동가이며, 한국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헌신했던 용성 진종 대종사이다.

용성스님의 탄생지인 전북 장수군 변암면 죽림리에 들어선 죽림정사는 한창 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14일 죽림정사에서 친견한 불심 도문스님은 건립중인 용성스님 유품전시관과 106평 조사전을 둘러보고 제쳤다.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을 친견한 뒤 조사전 앞을 신책중인 스님께 다가가 인사드리니 대뜸 "지금 보이는 조사전에 서역인도의 제1세 마하가섭존자부터 제28세 보리달마 존자, 중국의 제56세 석유칭공대사, 한국의 제57세 태고보우국사부터 제67세 환성지안대사까지 모셔, 불자들 과 승려, 민족의 교육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다.

스님은 기도시간이니, 요사로 가서 차공양하라고 말씀하시고는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여 33명으로 지었다는 법당으로 들어가셨다.

요사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밖에서 우렁찬 법문소리가 들린다. 스님은 열 마 음에서 차를 절에 왔다는 한 촌로에게 김 시습이 지은 금오산화 1권에 나오는 <만복사저포기>를 들려주고 제쳤다.

"남편 고을에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항상 외롭게 살아온 노총각 양생(梁生)이 있었 어요 양생은 아름다운 배필을 짝지어 달 라고 만복사 부처님에게 발원했어요. 어 느 날 부처님은 양생의 정성에 감복하여 화현했어요 양생은 저포(蓑蓑) 옷날이로 내기를 하여 자신이 이기면 소원을 들어 달라고 해요. 부처님은 양생이 이기도록 해주지요. 내기 약속대로 양생은 한 여인을 만나 그녀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33년후 만복사에 갔다가 자신과 사랑한 여 인이 33년 전 죽은 처자임을 알게 됩니다. 양생은 천도기도를 하여 그 여인이 천상 으로 귀양하게 돌아가도록 해주지요. 이 렇듯 불교는 발원(發願) 사상입니다. 발원을 하면 뭐든 이뤄질 수 가 있어요. 끊임없이 정진하세요."

스님은 법문을 마친 뒤 촌로에게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발원했는지 물었다. 촌로는 '아들이 구루구에서 서울시의원 에 출마했다고 해서 부처님 전에 아들 당 선되게 해달라고 발원했습니다'라고 말했 다.

스님은 "부처님께 원하는 게 있으면 양생이처럼 지극정성으로 간절하게 졸라야 해요. 그러면 됩니다. 집에 가지 말고 절에서 공양한 뒤 기도 좀 더하고 가세요"라고 하자 촌 로는 스님에게 "당신이 되든 안되든 꼭 아들을 스님께 데려 오겠다"며 연신 고개 를 숙였다.

스님은 마을가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 니(心處存佛), 그 일과 이치에 불공하라

# 우리생활이 부처님 법

『理事佛典』은 용성 진종 조사님의 교훈 을 줄조리며 염주를 돌리셨다.

스님께 현재 불교계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고,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쭙어 보았다.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지성 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생활이 곧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법이 곧 생활입니다. 공양할 때도 발우공 양을 생활화 하도록 해야 합니다.

로움을 여의고 남고 죽음이 없는 열반의 즐거움을 얻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수 행생활과 어려서움을 글러 깨달음을 여 는 전미개요(轉迷開悟)의 수행생활로 돌 려져야 힘을 강조하시며 다음과 같은 게 송을 들어 주셨다.

불사수행(佛事修行) 하여, 복덕구족(福 德具足)하여지고  
염불수행(念佛修行)하여 삼매현전(三 昧現前)

#### 도문스님은?

백용성 조사의 10가지 유훈실현에 앞장서고 있 는 도문스님은 1935년 전북 남원에서 출생했다.

46년 장성 백양사에서 동현스님을 은사로 득 도하여, 만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60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스님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 다. 이후 경주 분황사, 공주 마곡사, 장성 백양사, 정읍 내장사, 서울 대각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장수 죽림정사, 경주 천통사 조사이며, 대각회 회 장을 맡고 있다.

도문스님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전

#### '전법·엄격함=도문스님'

#### 불경·어록 100만권 배포

법'과 '엄격함'이다. 스님은 지위고하, 나이가 많 고 적음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전법에 나선 다. 불경과 조사어록을 100만권 이상 배포하고, 100만명에게 수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스님은 또 상좌스님들에게 항상 예의와 엄격 한 계율을 강조한다. 예의와 계율에 한 치의 어긋 남이라도 있을 경우 과문을 면치 못할 정도이다.

대성사 신도회 한영옥 회장은 "평소 큰스님께 서는 계행 등 어떤 부분에 있어서나 모범을 보이 시는 분이더라"며 "상좌스님들에 대한 지원과 사랑 은 엄격함 만큼이나 깊다"고 말했다.



도문스님은 용성조사의 탄생지에 창건된 죽림정사 주변을 산책 10가지 유훈을 되새긴다.

## 용성스님 유훈 10사목 받아 60년간 노력 2004년 불사끝나

또 대중들이 불사를 통하여 온 겨레, 전 인류가 다함께 성불인연 짓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지혜의 눈 을 얻을 수 있도록 불교 오대수 행인 참선, 염불, 간경, 주력, 불 사 수행에 전력해야 합니다."

스님은 용성대종사의 3대 생활 교훈에 바탕하여 악을 그치고 선을 닦는 지악수 선(止惡修善)의 보통생활과 남고 죽는 과

鍊現前하여지며  
간경수행(經行修行)하여 해안공부(慧 眼顯發)하여지고  
주력수행(呪力修行)하여 업장소멸(業 障消除)하여지며  
참선수행(禪修行)하여 의단독로(意 斷獨覺)하여지이다.

"경전결집 육사승취 정산을 확립이 믿 고 받들어 행하는 것이 불자의 할 일입니

다. 각자 근기에 맞는 불교 5대 수행 회향해야 하는 것이지요. 불사수행 성불인연(成佛因緣)을 짓는 일이라 습니다. 인연법이란 근본법이란 간 중한 것이 있다면 복덕과 지혜인(福 德與智慧)은 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에 경전(經典), 부모나 은사, 아픈과 의 은혜를 갚는 은전(恩田), 불쌍한 을 돕는 비전(悲田)을 삼복전(三福 田)이라 합니다. 주력수행은 진실 인 진언과 선법(善法)을 모두 지녀서 겨 일어버리지 않게 하는 다리니(擔 荷) 모든 악한 법을 버리고 한량없는 착 을 기르는 것입니다.

간경수행은 경을 보는 것을 말하 입니다. 경문을 소리없이 눈으로 보 어 나아가는 것이 좁은 의미에서의

## 漢拏

### 명품에는 '격'이 있습니다

아름답되 속되지 않고  
부드럽되 흔들리지 않는다!  
정직하고 깨끗한 기업 한라건설이  
아파트를 짓는 철학입니다.  
우아한 기품 속에  
변함없는 가치가 빛나는  
대한민국 명품 아파트-  
한라 비발디

한라건설  
www.hallaapt.co.kr

vivaldi river  
한라비발디

최고 경쟁률 16.4 : 1  
능곡 한라 비발디 리버

능곡 한라 비발디 리버에 보내주시  
고객 여러분의 상원에 감사드리며,  
한라건설은 책임을 다하는 성실시공으로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문의: 031-901-9600

SIGMA TOWER

부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이름-  
서면 한라 시그마타워

한라건설이 자신있게 선보이는  
고수익형 원룸 한라 시그마타워 -  
부산의 중심, 서면에서 지금 만나보십시오.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051-866-4900